

왕 한 성
 (주)화랑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건축사
 by Wang Han-sung, KIRA

KBC 2005에 대하여

About Korean Building Code 2005

feature

KBC 2005 라고 하면 “뭔가?” 하고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KBS(Korea Broadcasting System)를 잘못 적었나? 아니다. 그럼, ‘한국복싱협회(Korea Boxing Club) 2005년 사업계획’ 인가? 그것도 아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WBA(World Boxing Association)은 있어도 KBC는 그게 아니었다.

KBC는 ‘Korean Building Code’의 약자로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뜻하는 글귀였다.

이해를 돕기위해 보충설명을 하면, ‘KBC2005’는 대한건축학회에서 2005년에 제정한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대한 내용이고, 이는 건설교통부가 2005년 4월 6일 공포한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건축구조설계기준(Korea Building Code-Structural 즉, KBC-S)’의 내용이다.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건축법규에 명시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건축물의 구조안전 관련 설계기준이 훈령, 고시 등 19종으로 각기 규정되어 건축관계자가 이를 활용하기가 불편하고 건축구조기술 발전을 신속하게 수용하기도 어려웠으나, KBC 2005는 건축물의 구조설계방법 및 하중수치 등 건축관련 구조기준이 「건축구조설계기준」으로 통합되어, 앞으로는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시공사, 구조기술사 등) 등이 구조기준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건설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다. 물론, 그 정도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조금이라도 지닌 사람이라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리라 본다.

그럼, KBC 2005의 내용 중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지난 2005년 7월 14일 경기도에서 주최한 ‘제4회 건축정보 Workshop’의 토론자 패널로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KBC 2005를 접하게 되었다.

내용 중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내진기준'에 관한 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KBC 0106 책임 구조기술사, 0106.1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0106.2 책임 구조기술자의 책무, 0106.3 책임 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에 관한 내용은 대한건축학회 KBC 위원들의 명성을 건축계 만방에 알리고도 남을만한 걸작이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요즘 들어 푸게 지진해일과 일본 고베 지진, 미국노스리지 지진, 멕시코 지진 등... 지진이 빈발하고, 그 피해도 막심하니 지진규정을 강화하고 준비하지는 것이다. 의도도 좋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축사들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KBC 위원들은 대한건축사협회나 대한건설협회, 주택협회, 관련 공무원들과 통합적인 의견 청취나 조율도 없이 덜렁 건축설계기준만 내놓다 보니 몇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첫째, 대부분의 지진 피해는 5층이하의 저층건물과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들의 피해가 볼보듯 뻘한데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은 일언반구도 없고, 앞으로 지어질 '구조안전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들-3층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경간 10미터 이상-에 대한 규정만 있다.

그것도 '건축구조기술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건축사나 그동안 건축구조분야에 종사해 왔던, 인정구조기술자들은 앞으로, '구조 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물을 설계할 때는, KBC 2005에 의하여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의 등록건축사 8,215명은, 30년전 최초 9명으로 시작하여 오늘의 700여명에 이르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도장을 못받으면 건축설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는 극심한 불황속에서 2005년 4월 기준 인,허가건수 10,537건을 해당 소속 회원으로 나눠보면 등록건축사 1인당 1.3건/월을 처리하는데 반해 건축구조 기술사는 14~15건/월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물량이다.

둘째, 구조 실험과 검사를 기존의 10,333명의 수석 감리사와 9,147명의 감리사, 6,633명의 감리사보 대신 '건축구조기술사'가 해야 한다고 한다. 건설교통부가 2003년 10월말부터 발간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는 책자가 있는 지도 모르면서 감리원이라면 기본업무인 '품질검사와 시공재료의 시험 등'에 대한 규정을 또 두겠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잘 모르는 고귀하신 KBC 위원님들이 만드신 규정으로 기존의 수많은 현장 감리들은 또 실직을 맛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 지 심히 우려된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KBC 규정만 있고, 일부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별로 소용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피로티 구조로 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 하부구조가 지진에 취약하 하다고 해서 안되게 되어 있다. 그럼, 사업승인 받을 때, 개방감 주라고 심의에서 온갖 잔소리 다 듣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원한테 실컷 설명 다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피로티는 벽으로 막아야 한다. 피로티 구조의 바닥면적 산입제외 부분에 대한 처리는 해당 공무원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다.

당연히 해결될 때까지 허가는 보류될 것이며, 이는 민원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져 폭동직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본 기준을 적용해서 그리고(설계자), 판단하고(허가권자), 짓는 사람(시공사)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기준만 덜렁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지극히 단세포적이며, 이기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KBC 2005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 보았다. 느껴졌지만, 이건 국민의 안전을 빌미로 보기도 민망한 밥그릇 싸움을 하자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왜, 글의 서두부분에서 그렇게 비아냥거렸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진에 대비하고 안전한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 대한건축학회의 KBC 2005는 보다 많은 관계자들과의 깊이 있는 숙의 끝에 건축계가 단합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야 했다.

건축구조가 무엇인가? 세계를 건축과 조화롭게 함께 공존해 오던 분야가 아닌 가. 능력있는 건축사는 직접 구조계산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진 건축사는 당연히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외중에서도 슬기롭게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배가 침몰하면 쥐가 제일 먼저 배를 떠난다고 하던데, 건축경기가 침몰하는 배와 같으니 건축계를 떠나겠다고 작정한 것인가!

Workshop 때 좌장도 구조를 가르치시는 교수님, 토론자 두분도 덕망 있으신 구조를 가르치시는 교수님과 박사님 그리고 일천한 나와 주택건설업협회 분이셨다. 경기도내 수백명의 공무원과 일부 건축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외로이 보였을 때, 건축사로 발을 내디딘 13년의 세월이 한스러웠다.

대한건축사협회 본 협회는 행사 때마다 대한건축학회와 화환을 주고 받더니만 이런 중차대한 일하나 제대로 사전에 조율을 못하고, 사후약방문격으로 "뭐하고 있었는가"하고 자성에 찬 반문을 하고 싶다.

제안하고 싶다. 현재의 KBC 2005는 단순한 건축구조기준 이외의 불소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에, 통합된(integrated)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으므로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항은 삭제해 달라. 정히 안되면 본협회는 협회 차원의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하여 전 회원들에게 실비로 '건축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는 KBC 2005를 시행하기 전에 앞서 밝힌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KBC 위원을 위시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존의 길을 함께 모색하여 먼저 건축계를 이끄신 선배님들에게도, 오늘을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의 동료들에게도, 건축에 입문하는 후배님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건축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말 많던 2005년의 추석을 보름가량 앞두고었는데도 풍성함보다는 가슴이 뻥한 것은, 과연 우리 건축사들만의 가슴앓이인가 하는 아쉬움을 느끼며... ㉮